공공디자인의 힘, 티클 콕 브리지 DSDHA

Power of Public Design: New Tickle Cock Bridge DSDHA









DSDHA가 리노베이션한 티클 콕 브리지는 진지한 고민을 거쳐 성실하게 디자인한 작은 공공시설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활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1890년대에 철도 아래 만든 이 지하도는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지나다니는 중요한 보행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다시피 했다. 2003년 공모전을 통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영국 캐스틀포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할 재료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5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완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역사가와 협력해 장소에 얽힌 일화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빅토리아 시대에 다리 이름을 '티틀 코트 브리지'로 바꾸어 불경한 일화들을 감추려고 했던 역사도 함께 공유했다. DSDHA는 조명예술가 마틴 리치만과 협력해 이 버려진 좁은 지하도를 사람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재창조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편안한 쉼터를 여러 면으로 구성, 조명과 함께 설치하고 황폐한 벽과 주변 불모지를 풀이 자라는 열린 광장으로 재건했다. 새롭게 태어난 지하도 덕분에 시내 광장에도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

The new Tickle Cock Bridge, redesigned by DSDHA, is an example showing to what extent a small public facility designed in an earnest manner, after serious pondering, can revitalize a local community. Although the underpass, which had been constructed under a railway in the 1890s, is an important pedestrian passage for more than 10,000 residents a day, it was in a rather neglected state until now. This project, which started through a design competition in 2003, was completed in July this year, after five years of preparation period during which opinions of Castleford residents were gathered and consultation on materials to be used was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Martin Richman, a lighting artist, DSDHA recreated this abandoned narrow underpass into a public space that people can use conveniently. A comfortable shelter with room for people to rest was installed on a concrete structure, with several surfaces and new lighting along with an open plaza and green space, replacing dilapidated walls and neighboring wasteland. The new-born underpass has revitalized even the town plaza.